

청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창업 멘토링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준병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 과정)¹⁾ 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²⁾

국문 요약

창업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적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다. 특히 창업 멘토링의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유효한 250부를 구조방정식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청년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적 제약은 청년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미래불확실성과 실패부담감은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지각된 행동통제, 직무스트레스, 기술적 제약,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창업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창업 멘토링을 받은 집단보다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기술적 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학술적으로는 PPM(Push-Pull-Mooring)과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결합한 모형의 창업분야 연구의 유용성을 검증한 것이며, 실무적으로는 창업 멘토링은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었다.

■ 중심어: 청년 창업, 창업 멘토링, PPM, TPB, 창업의도

I. 서론

한국에서의 창업은 경제성장, 기술혁신,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창업관련 연구는 오랫동안 새로운 비즈니스가 어떻게 창출되고 유지되는지를 이해하는 초석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생 창업, 시니어 창업 등 창업 생태계 내의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했다.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 범위에도 불구하고 창업 환경에서 역동적이고 잠재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층의 창업에 대한 연구는 눈에 띄는 격차가 존재한다(Lin et al., 2023). 이러한 격차는 연구의 양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의 깊이에도 있어왔다. 상당수의 창업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이지만 대부분은 연구자들이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해 스스로 개발한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주영, 이상직, 2022).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치가 있지만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이론에 기반한 연

1)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 과정, jeby5056@naver.com

2)교신저자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sj999@hoseo.edu

· 투고일: 2024-02-26 · 수정일: 2024-03-12 · 게재확정일: 2024-03-13

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어왔다. 청년 창업의도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학문적 결함은 이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방해하는 중요한 공백을 드러낸다(Kumar & Shukla, 2023). 이러한 단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한된 이론적 프레임워크이다. 현재 청년 창업의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탄탄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 모델에 의존하다 보니 다양한 상황과 인구 집단에 걸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계획된 행동 이론(TPB)이나 PPM과 같이 기업가 정신에 관한 기존의 이론을 청년 창업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통합하고 테스트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최한중, 이상직, 2023). 이러한 이론적 토대는 청년 창업의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및 심리적 요인에 대한 좁은 초점이다. 기존 연구는 종종 연령, 성별, 개인의 성격 특성 등 좁은 범위의 인구 통계학적,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더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의 비중이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창업의도의 복잡성은 보다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회적 규범, 자본에 대한 접근성, 교육 기회, 기술 발전 및 거시 경제 상황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된다(Vutsova et al., 2023). 이러한 광범위한 결정 요인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은 청년들의 창업 경로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맥락 및 환경 변수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 청년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맥락적, 환경적 변수의 역할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게 부족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숙도, 멘토링 및 지원 네트워크의 가용성, 다양한 지리적 또는 경제적 맥락에 존재하는 특정 장벽이나 촉진자 등의 요인이 포함된다. 기존 연구는 이러한 외부 조건이 개인의 동기 및 의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맥락적 요인이 청년 잠재 창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Crnogaj & Rus, 2023).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합하고 광범위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포함하도록 연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청년 창업의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하여 차세대 기업가 육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 결정, 지원 프로그램 및 교육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고유한 도전과 기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탄탄한 이론적 토대의 부재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인다. 청년 창업가들은 경험이 많은 선배 창업가들과 달리 자본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경험 부족, 높은 실패율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심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Vutsova et al., 2023). 또한 급격한 기술 변화와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의 특성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탄탄한 이론적 틀에 기반한 연구의 필요성이 분명해진다(Kumar & Shukla, 2023).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청년창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의 여정과 관련된 영향, 과정 및 결과를 조사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Awonuga et al.,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창업 맥락에서 기존의 이론적 틀을 탐구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 창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이해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둘째, 본 연구는 청년들의 창업의도와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여기에는 청년들의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변수의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스타트업 멘토링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적용 중인 이론적 틀 내에서 그 영향을 평가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멘토링이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창업기술과 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넷째, 본 연구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청년 창업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함으로써 학계와 실무 모두에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다. 정책 입안자, 교육자, 창업지원 기관이 청년 창업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증에 기반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년 창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범위와 이론적 깊이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현대 경제 환경에서 청년들의 창업 잠재력을 육성하는 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청년창업의 특성 및 이슈

청년 창업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청년의 정의와 범위는 국가 및 정책마다 차이를 보인다(안태욱·강태원, 2020). 창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면 청년은 39세 이하를 의미한다. 청년창업은 이 연령대의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통계청 (2024)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중 40대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 비율은 약 21.5%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의 루트를 크게 나누어 보면 대학 재학 중의 대학생 창업, 대학졸업 후의 청년창업,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인생 2막으로 시작하는 시니어 창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창업의 특성을 시니어 창업과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김영태, 2021).

첫째, 창업 동기 면에서 취업난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을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편이며, 시니어 창업의 경우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장벽으로 인한 인생 2막으로 창업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둘째, 창업형태면에서 청년 창업의 경우 자아실현, 아이디어 활용형의 도전적인 기술창업이 많은 반면, 시니어 창업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의 경험, 자본 및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안정적인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파급효과 측면에서 청년 창업의 경우 창업에 성공을 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반면 시니어 창업의 경우 가족경영, 안정추구 등으로 창업 성공 시에도 일자리 창출이 청년 창업에 비해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업 실패 시 재기 여부인데 청년 창업은 실패를 하더라도 취업이나 재창업 등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시니어 창업의 경우 실패 시 재기가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 역시 많지 않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은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Vutsova et al.(2023)은 발칸반도 소재 8개국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청년 창업의 잠재력과 역량은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은 경험과 실무능력 부족, 교육과 노동 시장 사이의 어려운 전환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청년 창업이 쉽지 않음을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했다.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춘주, 홍재범(2023a)은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분석한 결과 창업자 특성 항목인 지식 수준 그리고 창업전략과 개발역량의 항목 자금조달계획이 1년, 3년, 5년, 7년 생존기간 모두에서 유의한 변수이다. 창업전략 항목인 아이템 참신성은 3년, 5년, 7년 생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업자 특성의 기업가 정신은 12개월 생존에서만 유의하였다. 창업환경은 생존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는 자금조달계획, 지식수준 그리고 아이템의 참신성과 개발역량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초반에는 창업자의 지식수준이 후반에는 자금조달계획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또 다른 연구(박춘주, 홍재범, 2023b)에서는 창업 업종에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보다 서비스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적생존율 분석에서는 36개월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그 이후부터 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정보통신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창업자의 역량 중 학력과 동업종 경험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고, 사업특성에서는 창업 업종과 창업 지역이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배문규, 이희용, 2023). 제도이론과 스타트업 생태계 이론의 통합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은 제도적요소와 생태계 요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제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교육 시스템, 자금 접근성과 같은 공식적제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커뮤니티 지원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들은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마인드셋과 행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책은 또한 청년 창업가들이 넓은 창업 생태계 내에서 직면하는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다루어야 한다. 이에선 인적 자본 개발, 멘토링 접근성,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지식 및 혁신 네트워크의 가용성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Lin et al., 2023).

2.2 PPM, TPB와 창업의도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는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지와 계획을 의미한다. 이는 창업을 통해 기업가가 되려는 명확한 목적과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된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창업의도는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동기를 포함한다(Luong & Lee, 2023). 학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업의도는 개인이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이는 창업연구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태도, 사회적 규범,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창업의도는 또한 교육, 경험, 환경적 요인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형성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창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창업 관련 교육이나 멘토링을 받은 개인은 창업에 대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다. 요약하면 창업의도는 개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의지와 계획을 말하며, 이는 다양한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이론 내지 모형으로 PPM(Push-Pull-Mooring)과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결합하여 연구모형을 도출하였다.

PPM(Push-Pull-Mooring)은 원래 이주이론(migration theory)에 기반을 둔 모델로 개인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주하는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모델은 기존의 Push-Pull 모델을 확장하여 이주 결정 과정에서 단순히 밀어내는 요인(Push 요인)과 끌어당기는 요인(Pull 요인)뿐만 아니라 이주를 망설이게 하거나 방해하는 요인(Mooring 요인)도 함께 고려한다(Moon, 1995). Push 요인은 개인이 현재 위치에서 불리한 조건이나 상황(예: 실업, 낮은 생활 수준)으로 인해 떠나고자 하는 동기이다. Pull 요인은 새로운 목적지가 제공하는 유리한 조건이나 기회(예: 더 나은 직업 기회, 생활 환경)로 인해 개인을 끌어당기는 동기이다. Mooring 요인은 이주 결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개인적, 사회적 장애물(예: 가족의 반대, 문화적 차이, 이주 비용)로 이주를 망설이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Chen & Keng, 2019). 창업의도 연구에 PPM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창업 과정을 더욱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최한중, 이상직, 2023).

창업은 단순히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행동 이상의 것으로 개인의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조건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PPM 모델을 통해 창업으로 이끄는 다양한 요인(동기 부여 및 방해 요소)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Mooring 요인은 창업을 고려하는 개인이 실제로 창업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업에 대한 두려움, 자금 부족, 사회문화적 장벽 등이 창업의도를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PPM 모델을 통한 이해는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들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Mooring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전략(예: 창업 교육 강화, 자금 지원 제도 마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다. 창업 희망자들에게는 자신의 Push, Pull, Mooring 요인을 명확히 이해함으로써 보다 실현 가능한 창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Ojiaku et al., 2018).

계획된 행동이론(TPB)은 인간의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Ajzen(1991)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교육, 마케팅, 의료, 회계 등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창업의도의 연구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Krueger & Carsrud(1993)는 창업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TPB를 사용했으며 창업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각된 행동통제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태도가 있으며 이러한 창업의도가 창업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했다. 창업에 대한 태도(attitude)는 개인이 창업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개인이 해당 행동을 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포함한다(Ajzen, 2002).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은 개인이 창업 행동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의 기대나 압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회적 영향을 반영한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개인이 창업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실제 행동 수행의 용이성 또는 어려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포함한다(Ajzen, 1991). 이러한 요인들은 대체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PPM의 pull 요인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PM의 pull요인으로 TPB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 변수를 사용하였다.

2.2.1 직무스트레스, 미래불확실성과 창업의도

본 연구에서는 PPM의 push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미래불확실성을 설정하였다. 김민진(2021)은 직무스트레스를 직장 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정서적 압박감으로 정의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직장인의 심리적 건강, 직무 만족도, 생산성 및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정, 업무 부담, 인간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엄혜미, 문윤지, 2020; 차영덕, 2021). 이현주,이충기(2020)의 연구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높은 이직 의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정은 높은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지며 이는 창업을 포함한 경력 변경의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동욱, 2022). 특히 이나경, 현병환(2022)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 및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Noor et al.(2023)의 파키스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생활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고용 부문에서 자신의 경력 경로, 고용 안정성, 직업적 성취감, 재정적 안정성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과 명확성 결여를 의미한다(김형석, 정병규, 2023). 미래 불확실성이 청년 직장인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진로 결정 과정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청년 직장인들이 졸업 후 경험하는 직업 전망, 재정적 안정, 그리고 경제 및 취업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관련된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강경란, 박철우, 2021; Nguyen, 2021; Zayadin et al., 2023). 청년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래 불확실성은 창업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자신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며, 전통적인 취업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김보혜, 김창완, 2021).

이러한 동기는 청년들이 창업 기회를 탐색하고,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춘호, 2022). 미래 불확실성은 또한 청년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직장에서의 경력보다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 경제적,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다(김형석, 정병규, 2023). 이는 창업이 재정적 보상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취감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따라서 미래 불확실성은 청년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창업의도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독립적인 해결책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향, 미래를 혁신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만의 사업을 창출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1(H1) 청년층의 직무스트레스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청년층의 미래불확실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2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의도

본 연구에서는 PPM의 pull요인으로 TPB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설정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은 개인이 창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동의를 반영한다. 이는 가족, 친구, 배우자 등 개인이 소속된 준거집단의 창업 지지 여부와 관련된다. Ajzen(199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개인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이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즉 지지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말하며 이는 주변사람들의 믿음 또는 동의라고 정의하였다. Ozarally & Rivenburgh(2016), Gieuro(2019), 김예정(2020) 등은 주관적 규범을 개인이 창업에 대해 가지는 주변 인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인식으로 정의하였다. Eid et al.(2019)은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 요인이라 하였다. 최근의 창업관련 많은 연구(Ranga et al., 2019; Shah et al., 2020; Yasir et al., 2021; Alferaih, 2022; 김혜진,정지복, 2022 ; 유재홍,이정환, 2022)에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개인이 창업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통제 하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Ajzen, 2002). 정찬영(2021)은 개인이 창업할 수 있는 역량과 관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Ranga et al., 2019; Shah et al., 2020; Sharahiley, 2020; Yasir et al., 2021; Alferaih, 2022; 정대용 외, 2018 ; 김혜진,정지복, 2022; 정찬영, 2022)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는 주관적 규범과 마찬가지로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3(H3) 청년층의 주관적규범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H4) 청년층의 지각된행동통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실패부담감, 기술적 제약과 창업의도

본 연구에서는 PPM의 mooring으로 실패부담감과 기술적 제약을 설정하였다.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창업 과정에 있어서 잠재적 창업자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실패부담감은 창업 실패로 인한 사회적 및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되며, 이는 창업 활동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진다(박남규, 2015). 창업에 대한 부정적 환경 요인, 예를 들어 낮은 창업 성공률과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은 창업을 위협하고 불확실한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이러한 부담감은 창업 의도 형성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한다(김진홍, 2020 김형석, 정병규, 2023). 기홍석(2020)은 한국 창업자들 사이에서 창업 실패부담감이 높은 주된 이유로 창업에 대한 자신감 부족과 실패 후 재창업 기회의 부재를 지적했다. 실패부담감이 높은 잠재 창업자들은 창업 활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더라도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클 때 창업 의지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오상훈,하규수, 2013).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창업 실패는 개인의 전반적인 실패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창업에 대한 부담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실패부담감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이재호, 2016 ; 한향원, 하규수, 2020). 반면, Dvorsky et al.(2021), Amankwah et al.(2022)은 실패부담감이 창업가의 성과와 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성장이 창업 생태계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술적 제약이란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현재 기술의 상태와 관련하여 느끼는 한계나

도전 과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은 기술 접근성, 기술 부족, 새로운 기술의 통합 문제, 확장성 문제, 사이버 보안 위험, 규제 준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그리고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할 수 있다(Hossain et al., 2023). 이러한 기술적 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Biclesanu et al., 2023). 기술적인 제약이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창업을 고려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인 제약은 예비 창업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자원이나 전문 지식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으며 이는 초기 자본이 제한적인 예비 창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이러한 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의 제한은 창업의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Dabbous & Boustani, 2023).

둘째, 기술적인 제약은 특정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창업자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나 저작권이 기존 기업에 의해 확보되어 있을 경우 신규 창업자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대안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arma & Sharma, 2023).

셋째, 기술적인 제약은 창업 과정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혁신은 종종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기존 기술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데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창업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기술적 제약은 창업의도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Hossain et al., 2023). 기술적 제약과 창업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기술적 제약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H5) 청년층의 실패부담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H6) 청년층의 기술적제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창업 멘토링

멘토링이란 개념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멘토가 멘티의 개인적 및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멘티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우며, 조직에 적응하고 직무에 몰입하게 하며, 직무 만족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멘토링은 멘티가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 성능을 향상시키며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깊은 상호작용을 포함한다(Colley, 2003). 창업 멘토링은 멘토링의 한 형태로 특히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멘티를 지원한다. 조장현(2017)은 창업 멘토링은 멘티의 창업 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멘토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곽동신(2020)은 창업 멘토링은 멘티가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도전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지원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창업 멘토링은 멘티가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비즈니스 계획을 개발하며,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창업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멘토는 멘티가 네트워킹 기회를 확장하고, 투자자와 고객을 찾으며,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멘티가 창업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멘토링은 멘티의 개인적 및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이며, 창업 멘토링은 이를 창업 활동에 특화시켜 멘티가 창업 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창업 멘토

링은 단순히 개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 창업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 창업가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는 경제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 된다. 멘토링을 통해 제공되는 실질적인 조언, 전략적 방향성, 네트워킹 기회, 그리고 실전 경험은 청년 창업가들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지원은 청년 창업가들이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게 된다. 따라서, 멘토링은 청년 창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경제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김영태, 허철무, 2021).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청년 창업기업은 일반 창업기업 및 다른 창업지원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보다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2024) 자료에 의하면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은 33.8%, 타 기관 창업지원 수혜기업이 59.7%였다. 반면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76.7%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창업지원제도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담교수의 상시 멘토링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창업교육을 받는다.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상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전담교수 제도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서 직접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상철, 정병규, 2022), 매개변수로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연주, 2023) 및 조절변수로서 역할(김영태, 허철무, 2021)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멘토링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보고자 했다. 김영태, 허철무(2021)은 시니어 232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술적 역량, 창의적 역량, 교육지원, 자금지원의 요인은 모두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역량과 창업의도 간 그리고 창의적 역량과 창업의도 간에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교육지원과 창업지원간 그리고 자금지원과 창업의도 간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김진흥, 김영수(2019)는 창업교육 수강생 303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창업 멘토링은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와의 관계에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진, 정상철(2017)은 부산 경남지역 창업자 250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창업가정신과 창업 만족도 간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gbonna(2022)는 1673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창업교육과 창업의도 간에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Okeremi & Caesar(2023)의 연구에서는 ICT분야의 창업자 2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교육과 창업의도 간에 창업 멘토링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1(H7-1)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직무스트레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2(H7-2)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미래불확실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3(H7-3)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주관적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4(H7-4)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된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5(H7-5)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7-6(H7-6)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기술적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PPM과 TPB 이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도출하였다. Push 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 미래불확실성을 도출하였다. Pull요인으로 TPB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도출하였다. Mooring요인으로 실패부담감과 기술적 제약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이 청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어떻게 영향 관계가 달라지는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림1은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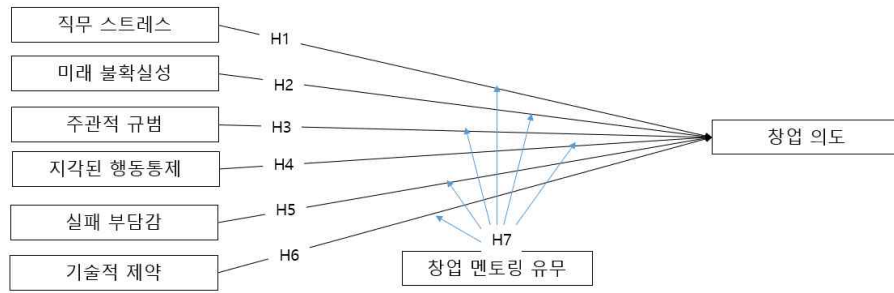


그림1. 연구 모형

3.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 기간은 2024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제외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273부를 수집하여 결측된 23부를 제외하고 최종 250부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1과 같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별, 결혼유무, 학력, 직업, 직종, 직급, 직장근무연수에 대한 문항으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이 64.3%, 여성이 35.7%였다. 기혼이 36.2%, 미혼이 63.8%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졸업이 58.6%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회사원이 54.5%였으며, 직장 퇴직 후 무직이 35.2%로 나타났다. 현재 혹은 과거 근무한 직종은 사무직이 38.6%, 연구직이 18.6%, 판매서비스직이 15.4%로 나타났다. 대리급이하가 33.9%, 과장급이 25.2%였다. 직장근무연수는 5년 미만이 44.9%,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3.6%, 10년 이상이 21.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Amos 24를 사용하였다.

<표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문항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참고문헌
직무스트레스	개인이 직무 환경의 요구사항과 개인의 필요사항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감 및 불안정 상태	5	이동욱(2022), Noor et al.(2023)
미래불확실성	직장 내에서 느끼는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4	김형석, 정병규(2023), Nguyen(2021),Zayd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참고문헌
주관적규범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 중용한 타인으로부터 지지와 기대	5	김예정(2020), Eid et al.(2019), Gieuro(2019),
지각된 행동통제	개인이 창업을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	5	정찬영(2020),Aharily(2020), Alferaih(2022)
실패부담감	창업 실패 불이익으로 생기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5	김형석, 정병규(2023), Amankwah et al.(2022)
기술적 제약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때 느끼는 기술에 대한 부담감	5	Biclesanu et al.(2023), Hossain et al.(2023)
창업멘토링유무	창업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적 지식, 전문적 조언, 네트워킹 기회, 및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외부 인사의 존재 여부	1	곽동신(2020), Colley(2003)
창업의도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내포하는 심리적 경향	5	김영태, 허철무(2021), Agbonna(2022)

IV. 실증분석 결과

4.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측정항목 간 집중 타당성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AMOS 24.0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을 활용했다. 직무스트레스, 미래불확실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실패부담감, 기술적 제약, 창업의도에 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β	t	p	CR	AVE	Cronbach's α
직무스트레스	js5	.690	fixed		.948	.784	.766
	js4	.690	9.347	***			
	js3	.689	9.342	***			
	js2	.693	8.459	***			
	js1	.682	8.339	***			
미래불확실성	fu4	.642	fixed		.932	.774	.699
	fu3	.651	7.404	***			
	fu2	.726	7.148	***			
주관적 규범	sn5	.676	fixed		.948	.785	.728
	sn4	.627	4.492	***			
	sn3	.771	4.624	***			
	sn2	.745	4.608	***			
지각된 행동통제	sn1	.614	4.475	***	.952	.800	.826
	pbc5	.765	fixed				
	pbc4	.743	13.542	***			
	pbc3	.694	10.653	***			
	pbc2	.697	12.646	***			
실패부담감	pbc1	.713	12.959	***	.958	.821	.865
	fb1	.693	fixed				
	fb2	.702	11.474	***			
	fb3	.796	9.055	***			
	fb4	.896	9.409	***			
	fb5	.759	8.873	***			

기술적 제약	tc1	.746	fixed		.962	.834	.907
	tc2	.836	15.731	***			
	tc3	.886	16.692	***			
	tc4	.832	15.600	***			
	tc5	.740	13.661	***			
창업의도	int1	.734	fixed		.966	.851	.938
	int2	.859	22.221	***			
	int3	.931	17.751	***			
	int4	.897	17.064	***			
	int5	.888	16.886	***			

확인적 요인 분석(측정 모형 분석)은 $\chi^2/df = 1.926$, RMR = .047, RMSEA = .052, GFI = .857, AGFI = .831, NFI = .902, TLI = .919, CFI = .928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CMIN/DF (χ^2/df) 값은 1.962로 기준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RMR = .047, RMSEA = .052도 기준치에 부합하는 수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별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6 이상을 보였으며, 개념 신뢰성은 모두 .9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AVE는 모두 .7 이상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표들이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므로 집중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분석하였다. 신뢰성 분석의 결과 Cronbach' α 값은 창업의도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래불확실성 .69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 .766, 주관적 규범 .728, 지각된 행동통제 .826, 실패부담감 .865, 기술적 제약 .907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결과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해당 연구에서는 Fornell and Larcker (1981)가 제안한 AVE 값의 제곱근 값(square root of AVE)과 상관관계 계수 사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즉,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관계 계수보다 클 때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표 3>과 같이 AVE 제곱근 값이 모든 상관계수의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미래불확실성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실패부담감	기술적 제약	창업의도	AVE 제곱근
직무스트레스	1							.885
미래불확실성	.585**	1						.880
주관적 규범	-.119*	-.137*	1					.886
지각된 행동통제	-.058	-.026	.479**	1				.894
실패부담감	.368**	.360**	-.285**	-.376**	1			.906
기술적 제약	.328**	.351**	-.249**	-.365**	.589**	1		.913
창업의도	.068	.032	.417**	.681**	-.256**	-.318**	1	.922

*. $p < .05$, **. $p < .01$

4.3 인과관계 분석 결과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의 인과관계 검정 전 가설 검정의 모형 적합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관련 지수는 $\chi^2/df = 1.926$, $RMR = .047$, $RMSEA = .052$, $GFI = .857$, $TLI = .919$, $NFI = .902$, $CFI = .928$ 로 나타나 본 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해보면 <표 4>와 같다. 직무스트레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41, CR값이 2.911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1(H1) 청년층의 직무스트레스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미래불확실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023, CR값이 .460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2(H2) 청년층의 미래불확실성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 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29, CR값이 2.900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3(H3) 청년층의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586, CR값이 12.401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4(H4) 청년층의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024, CR값이 .476으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5(H5) 청년층의 실패부담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각 되었다. 기술적 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β) -.140, CR값이 -2.824로 유의확률 .05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가설6(H6) 청년층의 기술적 제약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청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지각된 행동통제, 직무스트레스, 기술적 제약,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표 4> 인과관계 가설검정 결과

Path		β	C.R.	P	검정 결과
직무스트레스	-->	.141	2.911	.004	채택
미래불확실성	-->	.023	.460	.646	기각
주관적 규범	-->	.129	2.900	.004	채택
지각된 행동통제	-->	.586	12.401	.000	채택
실패부담감	-->	.024	.476	.635	기각
기술적 제약	-->	-.140	-2.824	.005	채택

$\chi^2 = 966.792$, $df = 502$, $p = .000$, $\chi^2/df = 1.926$, $RMR = .047$, $RMSEA = .052$, $GFI = .857$, $TLI = .919$, $NFI = .902$, $CFI = .928$

4.4 집단 간 차이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았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Amos 24를 활용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Multiple Group SEM Analysis)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2개로 나누었다.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은 둘 이상의 집단을 분석하여 모델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기법이다(우종필, 2022).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단순 비교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단순히 경로계수의 절댓값이 크다고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 내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뿐만 아니라 집단 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까지 검정할 필요가 있다(우종필, 2022). 동일 경로에서 Critical Ratio는 $P = .05$ 에서 t 값이 ± 1.965 를 초과할 때 두 집단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우종필, 2022).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가설 채택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측정모형의 동일성 검정, 경로의 유의성 검정, 카이제곱의 검정 단계로 진행하였다.

창업멘토링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 경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해 측정 동

일성(measurement equivalence) 검정을 했다. 측정 동일성은 타 모집단으로부터 얻어진 측정모형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다수의 응답자가 측정 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검정하는 과정이다. 측정 동일성 검정을 위해 조절변수인 창업 멘토링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이용해 집단 간 요인 부하량 제약 모형(constrained model)과 자유 모형(free model, unconstrained model)간의 카이제곱(χ^2) 검정을 하였다. 검정 결과 값은 <표5>와 같다.

<표 5> 두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정

Model	χ^2	df	$\Delta\chi^2$	CFI	TLI	RMSEA	Significance
Unconstrained	1626.754	1004	30.777	.906	.905	.043	동일함
Measurement weights	1657.531	1031		.902	.904	.043	

Unconstrained : 형태 동일성 검정을 위한 것으로 집단 간 어떠한 제약도 하지 않은 모델
Measurement weights : 요인부하량 동일성 검정을 위한 것으로 집단 간 요인부하량을 동일하게 제약하는 모델

검정 결과 자유 모형은 $\chi^2 = 1626.754$, $df = 1004$ 이었으며, 제약 모형의 경우 $\chi^2 = 1657.531$, $df = 1031$ 이었다. 제약 모형은 자유 모형과 대비해 자유도가 27 증가하였다. $p = .05$ 에서 df 차이가 = 27일 때, $\Delta\chi^2 = 40.113$ 이상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카이제곱 차이($\Delta\chi^2$)는 30.777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이 측정한 CFI, TLI, RMSEA 등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두 집단 간의 측정 동일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

χ^2 의 검정을 통해 경로 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는 <표6>과 같다. 동일 경로에서 Critical Ratio는 $P=.05$ 에서 t 값이 ± 1.965 를 초과할 때 두 집단 경로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우종필, 2022). 직무스트레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경로($t=2.039$),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경로($t=2.121$), 기술적 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경로($t=-2.648$)에 있어서 창업 멘토링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들을 포함해 두 집단 사이 경로계수를 보면 <표6>과 같다.

직무스트레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118$, $P<.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189$, $P>.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 값이 2.039로 $p=.05$ 에서 ± 1.965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7-1(H7-1)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직무스트레스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창업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받은 집단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불확실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026$, $P>.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030$, $P>.05$)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 값이 1.113으로 $p=.05$ 에서 ± 1.965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7-2(H7-2)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미래불확실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156$, $P<.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084$, $P>.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 값이 2.121로 $p=.05$ 에서 ± 1.965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7-3(H7-3)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창업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받은 집단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676$, $P<.05$)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481$, $P<.05$)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값이 1.451로 $p=.05$ 에서 ± 1.965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7-4(H7-4)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054$, $P> .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109$, $P> .05$)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값이 -1.732로 $p=.05$ 에서 ± 1.965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7-5(H7-5)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실패부담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각되었다. 기술적 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117$, $P< .05$)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표준화계수 $\beta=-.055$, $P> .05$)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χ^2 검정 결과는 t값이 -2.648로 $p=.05$ 에서 ± 1.965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7-6(H7-6) 창업 멘토링 유무에 따라 청년층의 기술적제약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창업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받은 집단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두 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및 유의성 검정

Path			창업관련 멘토링 받지 않은 집단			창업관련 멘토링 받은 집단			χ^2 (t-값)	결과
			β	C.R	P	β	CR	P		
직무스트레스	-->	창업의도	.118	2.161	.032	.189	1.973	.051	2.039	차이 있음
미래불확실성	-->	창업의도	.026	.471	.638	-.030	-.303	.763	1.113	차이 없음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156	3.092	.002	.084	.982	.328	2.121	차이 있음
지각된 행동통제	-->	창업의도	.676	12.748	.000	.481	9.022	.000	1.451	차이없음
실패부담감	-->	창업의도	.054	.972	.332	-.109	-1.034	.303	-1.732	차이 없음
기술적 제약	-->	창업의도	-.117	-2.120	.035	-.055	-1.534	.127	-2.648	차이 있음

4.5 논의

첫째,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청년 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Rangw et al., 2019; Alferaih, 2022; Noor et al., 2023)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와 창업의도의 관계는 역설적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 지지만 창업의 맥락에서는 일정 수준의 직무스트레스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년층들은 전통적인 고용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의 한계와 제약이 부각되어 직장 생활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고 창업에 도전하려는 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이 개인을 대안적인 경력 경로로서 창업으로 이끄는 창업의 push 요소와도 일치한다. 주관적 규범이란 어떤 행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사회적 압력을 지칭한다. 창업 맥락에서 청년층들이 창업활동을 중시하는 지원 네트워크(예: 가족, 친구 또는 기업가인 멘토)에 둘러싸여 있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사회적 영향이 개인의 행동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계획된 행동 이론(TPB)과 일치한다. 주관적 규범은 젊은 개인이 창업을 실행 가능하고 바람직한 직업 옵션으로 고려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검증과 격려를 제공한다. 인지된행동통제의 개념은 주어진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창업맥락에서 인지된 행동통제는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신의 기술,

지식, 자원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들이 자신의 창업역량에 자신감을 가질 때 창업에 대한 강한 의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효과는 지각된 행동 통제가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창업 활동에 대한 지각된 실현 가능성과 개인의 주체성을 높여 개인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TPB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기술적 제약은 청년 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Dabbous & Boustani, 2023; Hossain et al., 2023; Sharma & Sharma, 2023)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기술적 제약은 오늘날의 기술 중심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디지털 리소스와 도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을 만들어 청년층들의 창업의도를 크게 저해한다. 이러한 접근성이 나 기술 부족은 잠재적인 젊은 기업가들을 경쟁에서 불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약화시켜 행동 통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러한 제약은 현대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 요소인 혁신과 확장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성과 대체 솔루션의 필요성으로 인해 운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장애물을 비즈니스 포부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매력이 감소하여 창업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불확실성과 실패부담감은 청년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강경란, 박철우, 2021; Dvosky et al., 2021)와 반대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부담이 청년층의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는 청년층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환경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청년층은 좌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은 인생의 단계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전망과 위험에 대한 내성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청년층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자율성, 창의성, 빠른 성장 가능성 등 창업의 즉각적인 혜택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창업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으면 이러한 요소가 전통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완화할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성장한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이 뛰어나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적응력은 이러한 변수가 창업에 대한 그들의 의도를 크게 흔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청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의 영향력은 지각된 행동통제, 직무스트레스, 기술적 제약, 주관적 규범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청년 창업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 지식,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개인이 창업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업에 대한 동기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행동 통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의 핵심 원칙과 일치하며 결과 통제에 대한 지각이 행동 의도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경력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믿음은 창업의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직무스트레스, 기술적 제약, 사회적 압력 등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 요인의 우선순위는 청년층의 창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분석 결과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기술적 제약 모두 창업관련 멘토링을 받지 않은 집단이 받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미래불확실성, 지각된 행동통제, 실패부담감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검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론은 다음과 같다.

창업 멘토링을 받은 그룹이 직무스트레스나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감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기술적 제약에

덜 좌절한다는 결과는 창업의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멘토링의 다각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스타트업 멘토링은 청년 예비 창업자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멘토링은 멘티의 창업관련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직접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이러한 자신감의 증가는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멘토와 멘티의 목표 지향적인 지도, 기술 개발, 지식과 경험 공유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은 위험 관리, 의사 결정, 문제 해결 등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크게 높여 직무스트레스나 사회적 기대와 같은 외부 압력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스타트업 멘토링에는 기술 지원과 조언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약과 관련된 우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멘토는 청년들이 스스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리소스, 네트워크, 도구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은 창업과 비즈니스 운영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이러한 인식된 장벽을 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멘토는 멘티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여 창업 성공에 필수적인 문제 해결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멘토링 대상자의 창업의도에 대한 기술적 제약과 외부 의견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멘토의 역할을 강조한다. 멘토링은 청년 창업가의 내부 역량 강화에 집중함으로써 창업의도의 기반을 외부의 검증에서 내부의 신념과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창업가들이 창업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자립적인 접근 방식을 배양한다. 본질적으로 스타트업 멘토링은 창업 환경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자기 효능감과 독립심을 길러줌으로써 청년 창업가의 창업 여정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육성 관계는 직장 내 스트레스, 사회적 압력, 기술적 장애물 등 외부적인 방해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멘티가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창업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특히 창업 멘토링의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전국적인 설문조사와 250개의 유효한 응답을 대상으로 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분석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가 청년들의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기술적인 제약은 이러한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점은 스타트업 멘토링이 창업과 관련된 망설임 특히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우려,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망설임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 결과는 스타트업 멘토링이 잠재적인 젊은 기업가들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장벽을 해결하고 완화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주저함을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청년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어 멘토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 구성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적 열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5.1 시사점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Push-Pull-Mooring(PPM)과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의 통합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하였다. 이러한 연구 프레임워크가 청년층의 창업의도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제시하였다. 창업관련 연구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기반이 되는 연구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향후 창업관련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스타트

업 멘토링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제시이다. 멘토링이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우려, 기술적 제약과 관련된 망설임을 완화하고 멘토링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함으로써 청년 창업에 있어서 스타트업 멘토링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규명한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위계(인지된 행동 통제, 직장 내 스트레스, 기술적 제약, 주관적 규범)를 파악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특정 두려움과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지된 행동 통제를 향상시키고 기술적 제약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청년층의 창업의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술 장벽을 낮추고 지지적인 사회적 규범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년창업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자 교육 프로그램에 스트레스 관리, 자신감 증진, 기술 활용 능력에 관한 모듈을 통합하여 예비 창업가들이 창업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5.2 연구한계 및 향후 방향

본 연구의 주요 한계는 청년층들의 창업의도의 복잡성을 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한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PPM과 TPB 모델을 결합하여 사용했다는 데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대한 인식된 장벽과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직장 경험이 있는 참가자와 없는 참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직장 경험은 직무스트레스,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창업의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켜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를 통해 직장 경험이 스타트업 멘토링의 효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학력, 위험 감수성, 자원에 대한 접근성 등 다른 인구통계학적 및 심리학적 변수를 조사하면 창업의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향후 연구에서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경험에 맞춘 보다 타겟팅되고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강경란, 박철우 (2021). 대학생들의 기업가적인 디지털 역량과 금융이해력이 창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창업학회*, 16(4), 164-184.
- 곽동신 (2020). *멘토역량 및 멘토링 기능이 다차원 신뢰와 창업의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기흥석 (2020). *기업가정신 및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 자기효능감과 창업실패부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진 (2021). *집단미술치료가 사무직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및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혜, 김창완 (2021). 창업자기 효능감과 창업 의지 간의 관계 연구: 문제 해결 능력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6(4), 185-201.
- 김상철, 정병규. (2022). 액셀러레이터 보육프로그램과 보육기업의 창업성과 : 액셀러레이터 창업가 열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5(3), 1-17

- 김영진, 정상철. (2017). 창업가정신이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 멘토링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경남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지역연구*, 21(1), 119-136
- 김영태 (2021), *시니어 창업지원프로그램과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멘토링의 기능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서대학교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예정 (2020), *병원간호사의 창업의도 예측모형 구축: 경쟁모형 비교*.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태, 허철무. (2021).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2), 109-121.
- 김진홍(2020), *부모의 멘토링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실패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홍, 김영수. (2019). 창업교육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교육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561-582.
- 김춘호 (2022), 대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창업 기회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의 조절 효과. *한국창업학회*, 17(4), 97-121.
- 김형석, 정병규 (2023). 개인특성, 사업역량 및 창업 동기가 창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 창업기업과 일반창업기업의 차이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6(1), 35-57.
- 박남규 (2015).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창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진, 정지복(2022), 창업효능감과 주관적규범이 예술전공 대학생의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5), pp. 147-153.
- 배문규, 이희용. (2023). 청년창업지원 정책 탐색 : 창업생태계와 제도이론에 기초한 중요도-성과 분석 . *경영건설태 연구*, 23(3), 277-287
- 박춘주, 홍재범. (2023a).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8(6), 27-40.
- 박춘주, 홍재범. (2023b).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을 변화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4), 1421-1432
- 안태욱, 강태원. (2020).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 애로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5(2), 67-80.
- 엄혜미, 문윤지 (2020). 긍정심리자본과 리더·구성원 교환, 교환관계가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및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 항공사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39(2): 77-94.
- 오상훈, 하규수 (2013). 창업 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융복합연구*, 11(8), 143-157.
- 유재흥, 이정환 (2022). 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의향 영향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5(2), 73-94.
- 이나경, 현병환 (2022). 관계적 조직사회자본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의 매개와 조절효과. *유통경영학회지*, 25(1): 51-66.
- 이동욱 (2022).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의 단기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근로자의 마음챙김 명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1): 77-94.
- 이언주 (2023).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 관계: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8(6), 201-214
- 이재호 (2016). *창업 동기와 실패부담감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비교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영, 이상직. (2022). 시니어의 개인 특성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TPB와 EEM의 결합 모형을 중심으로 - . *한국창업학회지*, 17(5), 53-73

- 조장현 (2017). 창업 멘토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벤처창업연구*, 12(5), 67-77.
- 차영덕 (2021). 리더십 특성, 회복력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44(2): 119-129.
- 통계청 (2024). *2020년 창업기업현황*
- 청년창업사관학교 (2024년). *일반기업 및 창업지원기업 대비 높은 생존율*
- 최한중, 이상직 (2023). PPM 모형 접근법을 활용한 대학생 창업 의도의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8(5), 745-778
- 한향원, 하규수 (2020). 초기창업자의 창업동기와 창업준비가 사업계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5), 77-98.
- Agbonna, A. R. (2022). Moderating effect of mento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learning and attitude towards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s, Commerce and Management*, 10(1), 89-106.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Alferaih, A. (2022). Starting a New Business? Assessing University Students' Intentions towards Digital Entrepreneurship in Saudi Arab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Data Insights*, 2(2), 100087.
- Amankwah-Amoah, J., Adomako, S., & Berko, D. O. (2022). Once bitten, twice shy?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failure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collaboration.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9, 983-992.
- Awonuga, K. F., Mhlongo, N. Z., Olatoye, F. O., Ibeh, C. V., Elufioye, O. A., & Asuzu, O. F. (2024). Business incubators and their impact on startup success: A review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Archive*, 11(1), 1418-1432.
- Biclesanu, I., Savastano, M., Chinie, C., & Anagnoste, S. (2023). The role of business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echnology preparedness in the digital age. *Administrative Sciences*, 13(8), <https://doi.org/10.3390/admsci13080177>
- Chen, Y. H. & Keng, C. J.(2019). Utilizing the push-pull-mooring habit framework to explore users' intention to switch from offline to online real-person english learning platform. *Internet Research*, 29(1), 167-193.
- Crnogaj, K., & Rus, M. (2023). From start to scale: Navigating innovation,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strategic evolution. *Administrative Sciences*, 13(12), <https://doi.org/10.3390/admsci13120254>
- Colley, H.(2003). Engagement mentoring for socially excluded youth : Problematising an holistic approach to creating employ ability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habitus, *British Journal of Guidance & Counselling*, 31(1), 77-99
- Dabbous, A., & Boustani, N. M. (2023). Digital explos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act on promo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Risk and Financial Management*, 16(1), <https://doi.org/10.3390/jrfm16010027>
- Dvorsky, J., Belas, J., Gavurova, B., & Brabenec, T. (2021). Business risk management in the contex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conomic Research-Ekonomska Istraživanja*, 34(1), 1690-1708.

- Eid, R., Badewi, A., Selim, H., & El-Gohary, H. (2019) Integrating and extending competing intention models to underst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enior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 + Training*, 61(2), 234-254.
- Guerrero, M., Rialp, J., and Urbano, D. (2008). The impact of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 35-50.
- Hossain, M. I., Tabash, M. I., Siow, M. L., Ong, T. S., & Anagreh, S. (2023).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Gen Z university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constraints in Bangladesh.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2(1), 1-34.
- Krueger, N., & Carsrud, A.(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4), 315-330.
- Kumar, R., & Shukla, S. (2023), A theory-based approach to model entrepreneurial intentions: Exploring the role of creativity, proactive personality and passion, *Higher Education, Skills and Work-Based Learning*, 13(2), 355-370.
- Lin, J., Qin, J., Lyons, T., & Sekiguchi, T. (2023). Planning and evaluating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in schools: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ntrepreneurship Education*, 6(1), 25-44.
- Luong, A. & Lee, C. (2023).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desires and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New Zealand tourism and hospitality studen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Education*, 35(1), 44-61
- Moon, B.(1995), Paradigms in migration research: Exploring moorings as a schema.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4), 504-524.
- Nguyen, C. (2021). A review of literature in entrepreneurial intention Research: Global perspectives and Vietnamese perspectives. *Journal of Asia Entrepreneurship and Sustainability*, 17(1), 48-84.
- Noor, U., Rabbani, S. & Dastgeer, G. (2023). Impact of job insecurity during COVID-19 on gr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akistani entrepreneurs: A moderated mediation model. *Kybernetes*, 52(11), 5687-5705
- Ojiaku, O. C., Nkamnebe A. D. & Nwaizugbo I. C.(2018).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young graduates: Perspectives of push-pull-mooring model.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8, 1-17.
- Okeremi, A., & Caesar, L. D. (2023). Successful IT entrepreneurship in Nigeria: The contingent role of mentorship. *Journal of African Business*, 24(4), 597-631.
- Ozaralli, N., & Rivenburgh, N. K. (2016). Entrepreneurial intention: antecedents to entrepreneurial behavior in the USA and Turkey.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6(1), 1-32.
- Ranga, V., Jain, S., & Venkateswarlu, P. (2019). Explor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management students using shapero's model. *Theoretical Economics Letters*, 9(4), 959-972.
- Shah, I. A., Amjed, S., & Jaboob, S. (2020).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9(1), 1-15.
- Sharma, A., & Sharma, B. K. (2023). Are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ready to adopt digital branding strategies? A critical assessment. In *Digital Technologies for Smart Business, Economics and Education: Towards a Promising Future*,.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Vutsova, A., Arabadzhieva, M., & Angelova, R. (2023). The youth entrepreneurship as response to the youth unemployment-Examples of western Balkan Reg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fessional Business Review*, 8(6), e02299-e02299.
- Yasir, N., Mahmood, N., Mehmood, H. S., Rashid, O., & Liren, A. (2021). The Integrated Role of Personal Values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Form a Sustainable Entrepreneurial Intention. *Sustainability*, 13(16), 9249.
- Zayadin, R., Zucchella, A., Anand, A., Jones, P. and Ameen, N. (2023). Entrepreneurs' Decisions in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British Journal of Management*, 34(2), 831-848.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Youth Entrepreneurship : A Comparative Study of Mentored vs. Non-Mentored Groups

Lee, Joon-byeong¹⁾

Lee, Sang-jik²⁾

Abstract

This study undertook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impact of various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young people,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role of startup mentoring. Employing a survey distributed nationwide, data from 250 valid respondents were subjected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investigate these dynamics. The analysis uncovered that workplace stress,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ositively influenc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youth. Meanwhile, technological constraints negatively affected these intentions. The study did not explore the potential effects of future uncertainty and the burden of failure. Significantly, it was found that startup mentoring plays a crucial role in mitigating the negative impacts that may deter young individuals from pursuing entrepreneurship. Mentoring was instrumental in reducing negative influences, thereby fostering a more conducive environment for entrepreneurial ambition. By integrating the Push-Pull-Mooring (PPM)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models, this research not only validates these frameworks within the context of youth entrepreneurship but also underscores the essential function of startup mentoring in enha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insights from this stud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entoring programs in nurturing the entrepreneurial spirit among the youth, suggesting that targeted mentoring support can play a pivotal role in overcoming barriers to entrepreneurship.

Keyword: Youth Entrepreneurship, Startup Mentoring, PPM, TPB, Startup Intention

1)First Author, Ph 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jeby5056@naver.com

2)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University, sj999@hoseo.edu

제1 저자 소개

- 이준병(Lee, Joon-byeong)
 -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수, 창업지도사 1급, 기술창업지도사, 6 Sigma BB
 - 전)LG전자 미디어 연구소 책임연구원(1990~2016)
 - 경기테크노파크,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평가위원
- <관심분야> : ICT 시제품 개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스타트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비전과 비전, 성공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전략 등

교신 저자 소개

- 이상직 (Lee, Sang-jik)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경영, 경제 및 사회정책